



아! 청계천

최재범 (서울특별시 하수국장)

비 해는 서울로 定都한지 603년이 되는 해다. 우리 서울에는 한강을 포함해서 모두 35개의 많은 河川이 있지만, 왕조 초기 漢陽 都城안에는 불과 몇 개의 河川밖에 없었다.

서울의 地形은 좌청룡으로 洛山, 우백호로 인왕산이 병풍처럼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河川들은 南流하고, 안산인 南山이 있기 때문에 北流하는 支川들은 모두 청계천 (조선왕조 500백년 동안 줄곧 開川이라고 했음)에서 合水하여 東流하고 있다.

漢陽으로 遷都한 이후에 雨期 때마다 이 開川이 범람하여 川邊에 있던 집들은 물에 잠기고 떠내려가는 水害를 입었다. 더군다나 開川을 포함한 여러 細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에 모래가 쌓여 天井川化됨으로써 조금만 비가 내려도 물이 넘쳐났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중인 T.V 사극 "용의 눈물"에 나오는 방원왕자가 태종이 된후 계속되는 청계천의 水害를 걱정하는 신하들이 開川·治水工事を 건의한다. 그러나 태종은 建國이라 漢陽都城築造, 궁궐건축 등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일을 위하여 자주 勞力動員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천공사를 주저한다. 이 때 하륜이 태종왕에게 건의하기를

『 기쁨으로 백성을 부리고, 백성을 적당한 시기에 부리는 것이 예전의 도(道)입니다. 만일 의리에 합한다면, 비록 칼날에 죽더라도 또한 분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도리는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주고 밤에는 역사를 쉬게하여 피로해서 병이 나지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 라고 조선왕조실록(태

종 11년 12월 1일)은 청계천의 하천공사를 주저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조정에서는 개거도감(開渠都監)이라는 하천공사 담당기관을 설치하여 청계천 改修工事に 착수한다.

이때의 공사는 주로 浚濼을 하여 天井川의 河床을 낮추는 것이었다. 堤防은 구간별로 나누어 상류 장의 동부터 종묘동(지금의 3,4가)까지는 돌을 이용해 호안공사를 했고 종묘동에서 동대문 都城 수구문까지는 나무로 했으며 성밖 중랑천 合水點까지는 흙으로 쌓았다.

임금이 開川을 건너는 다리도 여닐곱개씩이나 되었다. 橋梁의 위치는 주로 開川과 支流川이 마주치는 合流 지점에 설치함으로서 通行에 편리함과 效率性을 높였다.

橋梁의 材料는 주로 흙이었으며 때로는 木材로 만든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 장마철에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다리가 떠내려가거나 파손되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의정부(議政府)의 건의에 따라 태종 왕은 生前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신덕왕후 강씨(태조의 계비)의 墓를 移葬(정릉)시킨후 陵의 石物들을 가지고 광통교(광교)를 흙다리(土橋)에서 石橋로 改築토록 지시하였다.

교량의 기초로 사용한 貞陵의 신장석 등은 태조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당대의 名石工을 제주로부터 데려와 조각을 했다.

이때 만들어진 석교인 광통교(광교)가 지금도 청계천 그곳에 그대로 옛모양을 간직한 채 복개길 암흑 속에 남아 있다.

그리고 河川水位를 測定한 수표가 있던 수표교도

石橋로 改築되었는데 청계천 覆蓋時 장충단공원에 옮겨 원형 그대로 保存되어 있으며, 돌로 만든 수위표는 세종대왕 기념관에 따로 보존되어 있다.

개천(청계천)은 도읍지의 明堂水로 보았으나 1920년대에 경학원(성균관) 대제학을 역임하고 이왕직 편찬실장을 하던 정만조(鄭萬朝)는 開川이 西流하여 入水의 모양이 되어야 할텐데 오히려 東流하므로 出水의 形象이니 國運이 좋지 않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니까 황토마루(지금의 광화문 4거리)를 제치고 봉래동 방면으로 운하를 만들어 딱도에서 한강수를 도류해서 저지대인 용산쪽으로 西流케 하는 소위 流域變更을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水害도 줄이고 風水 地理上의 明堂 條件이 갖추어 진다는 것인데 이 주장은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세월이 흘러서 해방이후 서울에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생활하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버리게 됨으로써 하천은 오염수가 흐르고 급속하게 나빠졌다. 청계천이 불결함이 극에 달하여 도저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서울시는 河川覆蓋를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에 의해서 1958년부터 청계천 복개공사가 시작되었고 그후 서울시 하수도 분야의 주요 力點施策이 되어 왔다. 현재는 청계8가까지 覆蓋되고 그위에 다시 高架道路가 건설됨으로써 도심교통 소통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요즘 先進國에서는 하천에서 人工을 가급적 없애고 自然狀態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대단하다.

우리 서울에서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키는

움직임이 일부지역에서 시작되고 있음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荒涼한 도시의 한 복판은 맑은 물이 흐르고 둔치에 수초가 우거져 자연 생태계가 회복된다면 사라졌던 물고기가 해엄치는 河川이 되살아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울 것인가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停車場이나 道路등 당장 눈앞의 편의를 앞세워 무조건 覆蓋해서 빈 공간 없이 최대한 활용코자 하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서울의 웬만한 하천변에는 하수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이제는 생활하수가 직접 개울이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은 거의 없게 되었다.

글자 그대로 청계천에도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開發과 交通을 이유로 덮어버린 하천과 개울의 복개를 벗겨내고 우리 눈으로 직접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환경은 살아나고 시민의식도 더욱 높아 질 것이다.

복개된 청계천을 모두 걷어내어 서울 시민이 맑은 물이 흐르는 시원한 都心의 水邊 空間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는 21세기 어느 가까운 時點에 이런 바람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曄々속세에 묻혀지내는 600여년전 태종왕 시대에 만든 광통교의 신장조각도 만져보고, 또 수표교와 오관수교도 복원하여 시민들이 건널 수 있었으면 …….

본고는 97년 10월 서울시에서 공모한 '서울이야기 수필공모전' 에서 입선한 작품입니다.
- 편집자 주 -